‘가을 화(花)담’… 빛으로 물드는 ‘황룡강 가을꽃축제’ 기대

10월 18~26일 황룡강 일원… 좀비 피해 달리는 ‘J(제이)-라이트런’, ‘시크릿 오디션’ 등 신선

오는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열리는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축제’가 품격 있는 콘텐츠와 공연 소식으로 일찍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제는 ‘황룡강 가을 화(花)담, 빛으로 물드는 이야기 길’이다. 낮에는 꽃과 자연, 밤에는 빛과 예술이 있는 장성만의 ‘문화서사’가 펼쳐진다.

축제장은 콘텐츠에 따라 총 5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군은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흥선대원군의 문장 ‘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앞 글자를 따 △문화화(花)담존 △불빛화(花)담존 △여유화(花)담존 △장터화(花)담존 △성장화(花)담존을 조성한다.

힐링허브정원 방면 ‘문화화(花)담존’은 문화예술과 전시 중심의 공간이다. 미술작품, 국화·야생화 분재 전시와 시화전, 장미향전 등이 준비된다. 정원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불빛화(花)담존’은 축제 주무대가 설치되는 황룡정원 야외무대 인근이다. 개막식과 유명가수 축하 공연 등 축제의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행사장 한편에는 미니어처 작품 전시, 원목 놀이 공간도 마련된다.

문화대교 방면 ‘여유화(花)담존’은 치유와 쉼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기획전시 ‘비움과 치유’가 기대를 모은다. 마음 속 응어리를 글로 풀어냈다가 지우고 비우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한다.

‘장터화(花)담존’에선 이름 그대로 장성 맛집 음식과 특산물, 특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그라운드 골프장에 조성되며, 거리 공연 등 볼거리도 준비된다.

‘성장화(花)담존’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놀기에 알맞다. 황룡강 상류 황미르랜드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펫 놀이터 등이 설치되며 카프라 블록 쌓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한다.

축제 기간 주요 행사도 눈길을 끈다. 첫날인 18일에는 지브리·디즈니 애니메이션 음악을 40인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19일 저녁 7시에는 ‘J(제이)-라이트 런’이 기다린다. 황룡강변에서 펼쳐지는 ‘스토리형 야간 러닝 프로그램’으로, 평화로운 달리기를 방해하는 좀비들을 피해 목표를 달성하며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올해 가을꽃축제를 대표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이디엠(EDM) 댄스 파티와 가수 박지현의 축하 무대도 이어진다.

21일 ‘음식명인전’에서는 장성 ‘집장’ 김봉화 명인과 나주 ‘홍어’ 천수봉 명인이 음식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현장에서 완성된 음식을 직접 시식해 볼 수도 있다. 24일에는 락·블루스 밴드 공연이 황룡강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롤링쿼츠’, ‘트랜스픽션’, ‘웬즈데이오프’, ‘어그랩’이 출연한다.

25일 저녁에는 개그맨 이홍렬이 진행하는 ‘추억 극장’이 마련된다. 코미디 공연과 가수 혜은이, 박상민의 노래 등이 어우러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26일 황룡정원 야외무대에선 오직 목소리와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시크릿 오디션, 전군노래자랑’이 열린다. 스크린으로 가려진 무대 뒤에서 노래 경연을 펼치는 방식이 흥미를 자아낸다. 10월 1일~17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22일 예선을 거쳐 이날 본선을 치른다.

공연, 체험과 함께 황룡강 야경도 꼭 즐겨야 할 콘텐츠다. 강변 곳곳에 조성되어 있는 주제 정원과 발길 닿는 곳마다 마주치는 경관 조명이 가을밤의 낭만을 더해준다. 장성/황해연 기자

구례군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강력 호소

“전국 생활인구 1위, 최적의 대상지”

지난 26일 구례섬진아트홀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순회 간담회」에서 구례군민 500여 명이 참석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구례군을 선정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군민들은 구례가 전국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과 전국어민회총연맹가 현재 정부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군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참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주최했다.

현장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자리해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구례군은 기본사회 구현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TF팀을 꾸려 꾸준히 시책발굴을 해왔으며, 현재 7대 분야, 16개 사업을 시행했거나 정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을 유보한 상황이라,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현재 군은 TF팀을 꾸려 구례만의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례군민의 사업선정 열망을 알리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전국 생활인구 1위 구례군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증명할 최적의 대상지”라며, 정부에서 구례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6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씩, 연간 총 1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청년이 만드는 정책, 전문성을 더하다” 협의체 정책 제안 역량 강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2일 청년센터에서 제8기 순천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협의체 위원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정책 발굴 동기 부여, 정책제안서 작성 실습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청년정책 조정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정책 제안 과정에 필요한 실무 감각을 익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순천청년정책협의체는 2018년 발족해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이끌어 왔으며, 제8기 협의체는 지난 3월에 위촉됐다. 참여소통, 일자리, 교육·문화, 주거·복지, 홍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협의체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3건의 정책을 제안하며 청년 문제 발굴·정책제안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청년위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는 동기를 얻었다”며 “청년정책제안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정책협의체는 순천시 청년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 앞으로도 협의체 위원들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암군, 40억 규모 무화과연구소 건립한다

국비 20억 확보… 무화과 전 주기 경쟁력 강화 시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3일 ‘무화과 과학영농시설 기반 구축’으로 농촌진흥청의 ‘2026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전국 최초로 무화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소 건립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 삼호읍 나불리 3,500㎡ 부지에 연면적 825㎡ 2층 규모의 연구소를 착공해 재배기술 연구, 병해충 대응, 가공기술 개발까지 무화과 전 주기 경쟁력 강화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이 시설에는 무화과 재배기술 및 품질 향상 교육이 이뤄질 ‘교육 및 세미나실’, 지역 적응 신품종 개발과 우량품종을 도입하는 ‘품종개발실’, 이상기상 대응 기술 보급을 담당하는 ‘병해충진단실’, 가공기술과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가공랩실’이 들어선다.

무화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영암군은, 지난해부터 ‘영암농업대학 무화과 과정’을 개설해 매년 30명의 농업인에게 25회 이상 전문 교육을 실시 중이고, 올해 1월에는 ‘무화과연구팀’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

영암군은 건립될 무화과연구소를 거점으로 최신 재배기술 보급, 병해충 대응력 강화, 가공 및 유통 지원 등 무화과 산업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가공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해 무화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김희선 기자

‘내가 먼저 청렴!’ 광양시, 2025년 추석 명절 청렴캠페인

광양시장과 신규임용 직원 함께… ‘청렴티슈’ 배부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시청 본관 1층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갑질 등 공직비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 직원이 청렴 실천 의지를 되새기며 건전한 명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규정을 안내하고, ‘내가 먼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청렴티슈를 배부하는 등 실천 중심의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정인화 시장도 청렴리더로서 지난 9월 22일 배치된 실무수습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정인화 시장은 현장에서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직자의 청렴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청렴한 조직문화는 시민의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발적인 청렴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이번 캠페인 외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명절 기간 특별감찰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신선호 기자

장흥군, 추석 맞이 공설공원묘지 벌초 “손님 맞이 완료”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설공원묘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벌초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초는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2개소와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등 관내 주요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초작업과 환경정비를 병행하여 묘지 주변의 미관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성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와 시설 개선을 통해 공설묘지가 성묘객들에게 편한 추모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벌초와 함께 쓰레기 수거, 안내 표지 정비, 주차장 및 화장실 점검 등 성묘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준비를 마쳤다.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설공원묘지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흥군 제공